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은 기본부터

우리의 장점을 살리면서 세계화에 성공하면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은 물론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설수 있을 것

추동화

과거의 물류부분은 기업의 전통적 부가가치 활동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고의 품질을 최저의 가격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의 본연적 가치추구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업의 전략 수립 과정에서 물류는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요소로 새롭게 각광 받기 시작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지속적 경쟁우위 원천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실로 ‘동북아물류중심국가’의 실현과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지향하는 한국 경제에 있어 물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지금껏 ‘동북아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많은 정책과 건의사항 들이 제시되었고 그 결과 실제 필자가 몸담은 업무현장에서도 점진적인 변화의 모습들을 볼 수 있으나, 일각에서는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관과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스스로 냉철한 자성과 함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자신감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세계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참여정부가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 전략 모델로 제시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부 한국이 경제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협공을 받고있어 불리한 점이 많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와 사회의 역동성이 장기 침체에 허덕이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 게는 자극을 주고, 우리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상이 중국에게는 좋은 모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시각이 더 지배적인 것 같다.

태평양시대에 접어들어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과 함께 지난 수 십년 간 축적된 산업기반, 기술력, 질 높은 노동력을 십분 활용하고, 우리 국민들을 다시 뭉쳐 움직이게 할 확실한 동기만 주어진다면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은 분명 비전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현재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에 대한 비관적 견해가 팽배해 지고 있는 바, 필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를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자신감 회복의 문제이다. 오늘의 상황이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잠재력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전후 50년간 분단국가라는 현실과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전세계에서 유래 없는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우리의 부지런함과 자신감이었으며, 지난 외환위기와 월드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에 내재된 위기극복 능력과 끼를 확인하지 않았던가. 자신감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더 나아가 변화를 주도할 수 있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스스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탄탄한 기본기와 체력을 연마해야 한다. 아울러 서로 격려하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 모두의 몫일 것이다.

둘째,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Win-Win 전략을 취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너는 죽고 나만 살아야 하는 제로섬 게임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내가 잘살기 위해서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며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파트너의 개념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처한 남북관계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국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며, 특히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추진 전략에 있어서는 더 더욱 그러하다.

이웃 나라들을 단순히 경쟁 상대로 보지 말고 상호 보완성을 가진 Hub의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여 타 지역 경제권으로부터 고립되지 않는 동북아 경제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DHL이 추진중인 GCK(Greater China and Korea) 전략은 한국과 중화권 국가들을 별개의 나라로 보지않고 두 나라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한 배를 타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지역공동체, 경제공동체의 길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 전략의 핵심은 한국이 중국과 경쟁관계가 아니라 '세계경제의 엔진'으로 부상한 중국에 활력을 더해주고 그로 인해 상생의 길을 추구하는 파트너가 된다는 것이다.

셋째, 동북아 물류중심국가의 실현은 국가나 기업들만의 몫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참여와 역할을 필요로 한다. 우리 모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규범과 행동 양식을 준수하는 것은 돈이 들지않는 투자이다. 세계화의 근본은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는 올바른 가치와 행동양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며, 이런 세계화는 한국을 작지만 강한 물류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는 한국이 숙명처럼 받아 들여야 할 과제이다. 그 숙명적 필연성으로 인해 세계화에 적응하고 활용하는 나라는 발전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나라는 퇴보할 것이다. 한국사람같이 적응을 잘하는 민족은 없다고 한다. 우리의 장점을 살리면서 세계화에 성공하면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은 물론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설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향은 먼 곳에 있지않고 항상 우리 안에서 발견된다.